대림산업, 고령에 LNG발전소 건설

고령군과 양해각서 체결 ... 2018년 완공으로 30년간 1880MW 생산

대림산업이 경북 고령군에서 1조5000억원 상당의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고령군은 10월31일 곽용환 고령군수, 김윤 대림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LNG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신고령변전소 인근 23만평방미터에 940MW 2기로 1880MW LNG발전소를 건설한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고,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며 30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군은 LNG발전소 건설로 50억원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발전소 예정부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있어 별도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며 “환경훼손 우려 없이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01>